

남부발전, 인천 정수사업소 태양광 준공

인천의 수산정수사업소에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.

한국남부발전은 인천시 남동구 수산정수사업소에 1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1월23일 밝혔다.

발전시설은 수산정수사업소의 물 생산시설인 여과지 지붕과 정수지 상부 등 유휴 공간에 설치됐으며 127만 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.

남부발전 기후변화대책팀 송기인 팀장은 “발전소를 통해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량을 800톤 가량 줄일 수 있다”며 “어린 소나무 28만8000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”라고 강조했다.

남부발전은 현재 부산과 영월, 하동 등에 총 4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부산시와 전라북도의 군산산업단지에도 각각 1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.

또 부산항 배후물류단지의 지붕에 아시아 최대인 65MW 태양광 발전시설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2011/11/23>